



2023. 11. 30 (목)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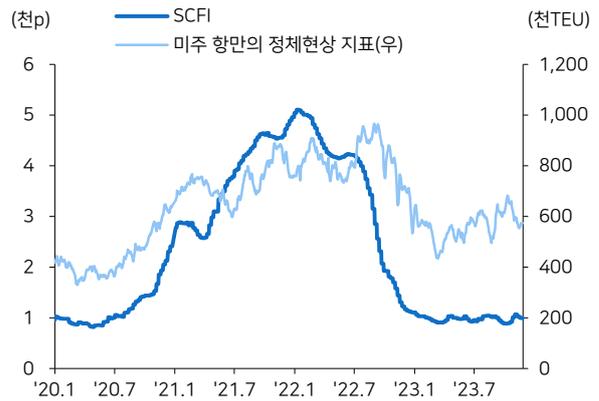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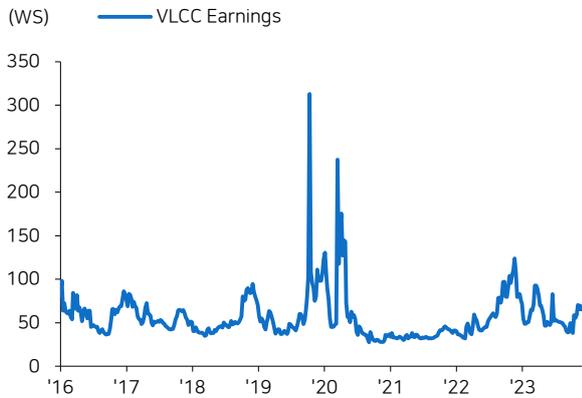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96.0p(+30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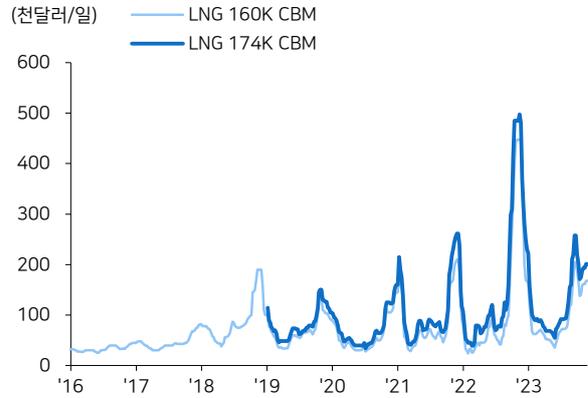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93.2p(-6.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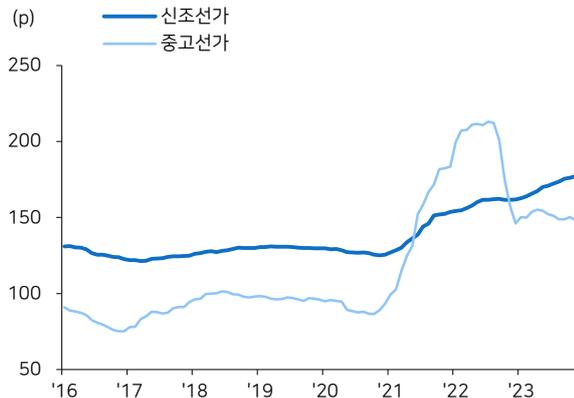
VLCC Spot Rate 65.3p(-4.3p WoW)



LNG Spot 운임 167.5천달러(- WoW)  
201.3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7.1p(+0.4p WoW)  
148.3p(-2.8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65.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OPEC플러스, 원유 생산량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 검토"

Opec+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규모로 추가 감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30일 발표될 원유 감산 규모는 기존 발표된 감산량과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라고 언급됨. OPEC+는 그 동안 2024년 원유 감산 규모를 논의해 왔으나 아프리카 회원국들과 이견이 생겨 회의일정이 30일로 연기되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https://t.ly/-czHy>)

### Bimco predicts two years of solid profits for tankers

Bimco가 석유 감산 및 유가 급등 우려에도 2년간 탱커 호황을 전망했다고 보도됨. 항해거리 증가와 석유 생산량 증가가 수익을 보장할 전망이라고 언급됨. 원유 탱커시장 규모는 2024년 6%, 2025년 3% 성장할 전망으로 알려짐. PC 탱커시장은 2024년은 유사하나, 2025년은 2.5% 성장으로 언급됨. 미국, 가이아나 및 브라질에서 수출량이 확대되고, 아시아 신규 정제소 건설로 톤마일 증가를 전망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t.ly/e0u2n>)

### LNG Panama Canal transits slashed to just four or five per month, says Angelicoussis Group's Sveinung Stohle

파나마운하 정체로 LNG선 통항량이 기존 일일 1척에서 월 4~5척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도됨. 대안으로 꼽히는 수에즈운하로 통행 시 비용이 발생하고, Cape 통행 시 시간이 50% 늘어난다고 알려짐. 파나마운하 정체로 운임 상승이 야기되고, 수급이 타이트해질 전망으로 언급됨. (Tradewinds) (<https://t.ly/TdtHm>)

### Greece set to quadruple gas export capacity by 2025

그리스가 2025년까지 가스 수출 설비를 4배 확대할 전망으로 보도됨. 2024년초에는 신규 FSRU가 설치되어 수입량을 두 배 늘릴 전망으로 알려짐. 해당 FSRU는 155,000CBM급으로 언급됨. (Upstream) (<https://t.ly/V2R6u>)

### Greece set to quadruple gas export capacity by 2025

Adnoc이 2개 30억달러규모 EPCM계약 입찰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P5 생산 확대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생산량을 5MBPD까지 확대를 목표로한다고 알려짐. 향후 4년간 1.5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입찰 참여자로는 중국 CPECC, 이집트 ENPPI, 그리스 Archirodon 과 중동 Kent가 예상된다고 알려짐. (Upstream) (<https://tinyurl.com/53ddka8p>)

### 아시아나항공, 국세청 상대 소송전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에 따라 부과된 1,000억원 규모 세금 관련해 법정 공방을 진행 중으로 보도됨. 소송은 2023년 3월 제기되었고, 2022년 4월 조세심판원에 조세 불복 신청을 낸 뒤 12월 기각되자 법정 공방을 추진했다고 언급됨. 소송가액은 50억원이지만, 실제 아시아나항공이 요구하는 금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짐. (조선Biz) (<https://tinyurl.com/38b796uu>)